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꿈꾸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아산재단 중점지원사업의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아산재단은 2015년부터 사회복지사업을 특화해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복지대상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중점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복지기관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직접 접하는 복지기관과 손잡아 선도적인 복지사업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014년부터 아산재단 사회복지 자문위원장을 맡으며 재단의 중점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재단의 중점지원사업은 기존의 복지제도 혹은 정부의 정책이 미치지 못하는 대표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선정해서 지원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복지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복지모델을 만드는 것이지요.”

재단의 복지모델 개발이 정책으로 이어져 보람

재단의 첫 번째 중점지원사업인 발달장애 지원사업은 5년간 31개 발달장애인 복지기관을 지원하며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모델 개발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는 복지 사각지대의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의 아동·청소년 분야를 집중 지원했다. 4년간 20개 복지기관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5개 기관을 지원했다.

또 복지현장 실무자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과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네트워크 지원사업도 2015년부터 함께 추진해 9년간 132개 기관을 지원했다.

이봉주 교수는 ‘가장 먼저 복지모델 개발이 완료된 발달장애 지원사업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전파한 좋은 사례가 많다’고 말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증발달장애 돌봄센터 모델인데, 서울시가 사업화한 이후 정부 정책에 반영되어 전국적인 사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단 중점지원사업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지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를 꼽는다. 예술교육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자립을 돕기 위해 시작된 하트하트 오케스트라는 활발한 콘서트와 초청공연으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세계사회복지대회 축하무대에 서며 전 세계 복지 전문가들로부터 장애인 문화예술의 성공사례로 인정받았다.

이봉주 교수는 ‘내년에 지원 완료되는 소외 아동·청소년 분야에도 좋은 사업이 많아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력기관의 적극적인 동참과 헌신에 감사

이봉주 교수는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정신장애인·사



아산재단은 2019년부터 소외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 모델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려인과 한국인 아이들.

회적 고립계층 지원사업’도 실제 현장에서 관련 서비스가 부족한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22년 12월부터 정신장애인도 복지기관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현재 복지현장은 이들을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정신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계층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회적 낙인과 편견, 관심 부족으로 정부 정책과 지원제도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과 사회적 고립계층의 복지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번 지원사업 공모과정에서 보니 참여 복지기관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가장 취약한 분야이기에 좋은 사업 모델이 마련되면 사회적 영향력이 정말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과정을 재단이 도와주고 이끌어주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이봉주 교수는 ‘중점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재단의 취지에 공감해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협력기관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다’며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좋은 성과를 이뤄낸 현장 실무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글 편집부



2023년 아산재단 공모사업 설명회에서 복지기관들의 질문에 답하는 이봉주 교수.